

한화케미칼 방한홍 사장 소통경영 강화

방한홍 한화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이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에 따르면, 방한홍 사장은 2013년 1월부터 여수와 울산공장을 돌며 생산직 직원들과 5차례 간담회를 열어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소통 행보는 현장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애사심과 소속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홍 사장은 2012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취임 직후부터 매월 본사 직원들과 아침식사를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갖는 <굿모닝 CEO>를 진행했고 2013년부터는 여수, 울산, 대전 등의 지방사업장으로 확대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경영환경 악화에 김승연 회장 부재까지 겹쳐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소통을 강화해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경영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3/04/16>